

**土種 홍화씨**  
임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임조과 품내  
● 대양산의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興國農産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 김용사 괘불탱. 오는 9월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전시되는 이 괘불탱은 석가여래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것을 상징하는 '영축산상도'다.



◇ 통도사 일주문을 들어온 '괘불이운연'. 자주빛 천으로 감싸 단장한 이 연은, 통도사성보박물관이 이번 이운의식을 위해 특별히 제작했다.

“ 지혜 구족하고  
내세 안락정토  
기원하옵니다 ”



◇ 괘불을 실은 연 좌우로 연등을 들고 행렬을 따르는 통도사 신도들.

통도사 성보박물관 괘불 이운의식

석가모니불 자비로운 눈웃음  
영축산 찾은 불자들 환희심

11일 오전 11시 경남 양산 통도사의 부도전 앞마당에는 괘불을 실은 연이 놓여지고, 그 일에는 함로·축대·다기 등의 상이 차려진다. 잠시 후 긴 호적 소리가 울리자, 앞마당을 메우고 있던 스님과 불자들은 흥호계를 병목하기 시작한다. 말부금강신으로 하여금 부처님이 오시는 도량을 정화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계승에 이어, '나무아미타불' 염송과 영축산상불을 창하는 법음이 울려 퍼지며, 괘불을 실은 연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오는 9월까지 전시하는 김용사 괘불탱의 이운의식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부터 '괘불탱 특별전'을 연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이번 김용사 괘불탱 특별전에 앞서 개최한 전시회와는 달리 괘불이운의식 재현을 기획했다. 이를 위해 통도사성보박물관은 김용사 괘불탱을 모시기 위한 '괘불이운연'을 특별히 제작하고 통도사 신도로 구성된 '괘불봉찬회'를 창립해, 한달 전부터 괘불이운의식 예행연습까지 했다.

김용사 괘불탱(9.47x7.02m)은 석가여래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것을 상징하는 '영축산상도'인데, 조선시대에 널리 유포된 《법화경》과 더불어 당시 법화신앙을 반영하고 있다.

괘불탱은 전각 벽면에 장엄된 탱화와는 달리 건물 밖에 마련된 괘불대에 거는 걸개 그림으로, 1년에 1~2회 수륙재·영산재·관음재·초과일 등과 같이 많은 불자들이 모이는 대형 불교 행사 때 사용된다. 그래서 괘불탱을 내건 사람은, 춤과 노래가 함께 어우러진 축제의 마당이 되고 또 민중의 염원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경배의 장소가 된다.

괘불이운의식이란 영산재나 수륙재 등을 봉행할 때, 야외 법당을 설치하고 괘불탱을 법의 장소로 옮기는 '괘불재'를 말한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빈번했다는 이 의식은 현재 통도사나 서울 봉원사에서 특별한 날에만 베풀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 까닭은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는 야외 법회에서 봉안되었던 괘불이었던 만큼 매우 크게 제작되었고, 이로 인해 현대의 사찰 규모와 신행 형태와는 어울리지 않은 탓이다. 괘불탱의 평균 크기는 5.6m를 웃돌며, 국내에서 가장 큰 통도사관음보살괘불탱은 14m에 이른다. 현존하는 괘불탱은 칠장사 오호회 괘불탱과, 안산시 영산회상괘불탱, 갑사 비로자나삼신불괘불탱, 신원사 노사나불괘불탱 등 80여 점이 전부다.

괘불봉찬회원들을 중심으로 1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현된 이번 이운의식은 나무대성인로왕보살(南無大聖弓王菩薩)이 세겨진 번(幡)이 제일 앞서고, 괘불탱을 중심으로 함도, 흥도, 나무석가여래사랑, 칠여래, 사보살, 보고, 오방, 향미, 팔금강, 십이지신상 반기들이 따랐다. 그 뒤에는 좌우로 연등과 향, 초, 꽃 등을 든 사람들과 이운 연에 맨 광목 끈을 짚은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괘불이운의식이 한창 진행되자 길가에 늘어섰던 불자와 관광객들도 하나 둘 괘불을 실은 연에 이어진 광목 끈을 어깨에 두르고 이운 행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점점 길어지는 행렬은 부도전에서부터 괘불탱이 가야 할 박물관에 이르는 길목을 가득 메웠다.



◇ 괘불이운 행렬을 이끌고 있는 50여 기의 번(幡)들. 괘불봉찬회원이 들고있는 번 사이로 축소제작된 김용사 괘불탱이 보인다.

행렬에 참여한 불자들의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소리는 더욱 장중해지고, 그들의 바람이 걸리는 번 자락을 따라 하늘을 수놓았다. 마침내 괘불탱은 박물관 앞마당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걸대에 안치되었다. 이어 여산 작법을 담은 스님들은 단상에 올라가 괘불탱을 향하여 바라춤·나비춤 등을 추는 가운데 이운 행렬에 참여한 불자들은 등상계를 읊으며 환희를 하기 시작했다. 괘불탱을 거는 의식인 연과는 통도사성보박물관내 중앙홀에 마련된 괘불 전시실에서 따로 열렸다. 돌돌 말아져 있던 대형 괘불탱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자 대중들은 저절로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괘불탱이 불단 위까지 완전히 올라가자 여산 작법을 시연하던 스님들은 '사무량계' '연과계' '영산연대' '보광양진연' 등을 읊었고, 대중들이 '영산지심'을 하는 것으로 괘불이운의식은 끝났다.

"일년에 한 두 차례밖에 친견할 수 없었던 귀중한 괘불탱을 전시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사람들이 괘불탱 친견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고 근본 불상으로 향하는 인연 공덕 짓길 바란다"는 법하(통도사성보박물관장)스님의 말을 듣지 않아도 절로 환희심이 우러나올 만큼, 괘불이운의식은 함로로 장중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괘불이운의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처님의 그 위대한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고스란히 이운되고, 그것이 세상을 불국토로 바꾸어 나갈 때야말로 괘불 이운의 끝이 아닐까.

글=천미희 기자(mhcheon@buddho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opia.com)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신개발**

속면, 케번 그리고 氣...  
장안 화재 폭발! 실용신안 등록 출원(20-003948)  
**황토 물침대 겸용 돌침대 탄생!!**

딱딱한 돌침대 물침대로...  
2Way Bed... 돌침대로! 물침대로!  
돌침대 만들기 10년. 현대기 전자파 제거 기능  
갖고 있는 세계 유일인 특허(등록 0157651호)제품

※ 무이자 할부 개시 (5월말까지만)  
· 6개월 무이자 (200만원 이상 구매)  
· 3개월 무이자 (200만원 이하 구매) LG 캐피탈 제휴업체

목단 902

국내 및 국제특허출원

10년 신기술보장

동명의 氣

**리빙스톤 (옥스톤)**

본사·A/S : 02)424-9427 직영점: 0333)618-7773

돌침대와 황토물침대의 효능...

- ◆ 봄(14월)에 불을 난다면 방바닥이 차고... 정말 돌침대가 필요할때
- ◆ 여름에 새끼바다 속속하고 눅눅한 냉기에... 황토물침대로 시원하게
- ◆ 허추를 반듯하게 고정해 줍니다.
- ◆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 ◆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 ◆ 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분해해 배기는 느낌이 없습니다.
- ◆ 환상의 나라 황토물침대가 음이온 원적외선을 경험!!
- ◆ 초장파 시스템으로 몸속 깊숙이 뽀뽀를 풀어줍니다.
-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수백을 차단하였습니다.
- ◆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줄 수 있습니다.
- ◆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